울산BBS, 행복한 마음나눔 자리 연다

6월 14일, 개국 10주년 기념 '토크쇼' 개최

조선경기 불황 등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시민의 아픔을 치유할 힐링 토크쇼가 마련된다.

BBS울산불교방송(사장 이진용)은 개국 10주년 기념 '행복한 마음나눔 토크쇼'를 6월 14일 오후 2시 30분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KBS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1부 '법륜스님의 즉문즉설'과 2부 기념식 및 축하공연으로 진행된다. 1부 토크쇼는 국민멘토로 활동 중인 법륜 스님이 나선다. 법륜 스님은 정토회 지도법사로 전국에서 즉문즉설 법석을 열어 대중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있다. 법륜 스님은 조선업 실직자와 청년 실업자 등 경기침체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울산시민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열린 토크쇼를 진행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개국 10주년 기념식은 울산불교방송의 10년을 돌아보는 영상 상영과 공로패 증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울산BBS 운영위원장인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 등 내빈들의 격려사 및 축사로 개국 10주년을 축하한다.

축하공연에서는 정수라, 주병선, 김희진, 조은새 등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와 울산불교방송 합창단과 울산불교방송남성중창단의 개국 10주년 축하 음성공양이 펼쳐진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북 청소년 끼 뽐낸 모악축제

전북파라미타, 백일장 · 사생대회 · 음악페스티벌

전북지역 불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과 숨겨진 기량을 뽐내는 '제22회 청소년 모악축제'가 5월 26일 전북 김제 금산사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사)전북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총재 성우, 금산사 주지)는 전북도내 300여 명의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운문, 산문, 한국화, 서양화 분야로 나눠 백일장과 사생대회, 청소년 음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사진〉

올해로 21번째 맞이한 청소년 모악축제는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요소를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금산사 대장전에서는 108배 참선이 진행됐으며 보제루에서는 △다도 체험 △단주 만들기 △연꽃등 만들기 △수묵화 그리기 △목탁



배우기 △사경 및 사불 △페이스 페인팅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열려 청소년들에게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청소년 음악페스티벌에서는 중등부 상관중학교 '신스'팀, 고등부 전북기계공고 '천신'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일장과 사생대회 입상자 등은 차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시청 불자모임 '연우회' 재창립

전주시청 공무원 불자들의 모임인 연우회(회장 김상용)가 재창립됐다.

전주시청 연우회는 5월 30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통한 신행생활을 할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는 금산사 혜일 스님을 비롯해 정혜사 법성 스님, 백준기 담마선우회장, 최동수 완산경불회장 등 내빈과 전주시청 연우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재창립된 전주시청 연우회는 2005년 전주시청 불자들이 창립한 '전불회'가 승진, 퇴직, 전근 등으로 유명무실해진 지 10년 만에 '전주시청 연우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지난 2월 41명의 회원으로 전주시청 동호회로 등록했다.

김상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며 "좋은 인연으로 만난 시청 불자들이 다른 단체 회원들과 소통해 어려운 곳을 보살피는 자비를 실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붓다의 날' 다짐한 붓다의 삶

한국테라와다불교, 울산서 웨사카 축제 열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오른쪽 어깨에 발우를 걸쳐 메고, 남방불교 복식을 갖춘 스님들이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겼다. 재가자들은 손에 밥과 국 그리고 선물을 담아 공양을 올리기 위해 한 줄로 섰다. 곧이어 재가자들은 합장하며 스님의 발우에 정성을 담아 공양물을 넣었다. 서울, 부산 그리고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불자들은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스님들에게 감로법문을 펼쳐 행복의 길을 보여주길 청했다.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이사장 진용)는 5월 27일 울산 붓다의길따라 선원에서 웨사카(Vesākha) 축제라고 불리는 붓다데이 법회를 봉행했다. 웨사카 축제는 테라와다 근본불교 수행국가인 미얀마와 스리랑카 등에서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그리고 열반을 웨사카 달 음력 보름에 함께 기념하는 행사다. 웨사카 축제는 부처님 당시 인도력의 둘째 달인 위사카(Visākha)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으며, 현재 음력 4월 15일에 진행되고 있다.

이사장 진용 스님은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날이 한 해를 통틀어 최고의 축제일"이라며 "부처님의 탄생과 성도 그리고 열반은 최종적인 목표, 윤회를 끝내기 위한 것으로 가장 성스러운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웨사카 축제일은 붓다의 가르침을 다시 진심으로 회상하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회에서 불자들은 팔리어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삼보의 의미를 회상하는 게송을 독송했다. 이어 필수독송 〈자애경〉을 함께 합송 후 △붓다의 날 게송 △촛불과 향, 꽃, 청정수 공양 게송 △청법 게송 및 8계를 청하는 8계문을 독송했다.

탄생 · 성도 · 열반 함께 기념
정성으로 탁발 공양 올려
진신사리 친견 자리 '환희'
해탈 의미 되새기는 기회로

불자들은 붓다의 날을 맞아 하루 동안 8계를 지키고 정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진용 스님의 법문에 집중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덕을 회향하는 게송으로 법회를 회향했다.

진용 스님은 "부처님의 위대한 사건, 탄생과 성도 그리고 열반은 궁극적 목표인 해탈을 위해 있다. 웨사카 축제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해탈을 목표로 삼고 정진 수행하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처님은 일체 생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다. 이런 부처님의 제자로 지도 받고 있는 것이다. 붓다의 날을 맞아 부처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예불 드리자"고 법문했다.

법회 후 불자들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비롯해 아난다, 사리붓다, 목갈라나 등 제자들의 사리를 친견하는 자리도 열렸다. 사리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가 보시한 것으로, 미얀마에서 정 교수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재가불자들은 부처님의 뜻을 따라 정진을 다짐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반들을 만나니 환희심이 생긴다고 입을 모았다.



5월 27일 울산 붓다의길따라 선원에서 열린 웨사카 축제. 스님들이 발우를 들고 탁발하며 재가불자들에게 공양물을 받고 있다.

정대화(71 · 부산 동래구) 붓다의길따라 운영회장은 "그동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등을 달았는데 이번에는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승가에 공양을 올리고 정진을 다짐했다"며 "바른 수행을 다짐하고 오로지 나눔으로 진행한 행사라 더욱 자유롭고 순수한 마음이어서 기쁨이 가득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테라와다 수행자들이 참석했다. 정법에 대한 목마름이 이룬 결과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테라와다불교는 수행도량 담마와나(담마의 숲) 선원 개원을 알리는 법회를 6월 16일 오전 10시 담마와나 선원 법당에서 봉행한다. 개원 법회 법문은 이사장 진용 스님이 맡는다.

"장자 역할한 조방원 업적에 감사"

곡성 성륜사, 조방원 공덕비 제막

호남의 대표적 선지식이었던 청화 스님이 주석한 성륜사의 창건을 이끈 아산 조방원(1926~2014) 선생의 공덕비가 제막됐다.

곡성 성륜사(주지 명원)는 청화 스님과의 일대사 인연으로 토지와 고택 등을 기부하며 성륜사 창건을 견인한 조방원 선생의 공덕비 제막식을 5월 25일 경내 육화당 앞마당에서 열었다.

조방원 선생은 마지막 남종화의 대가를 이룬 인물이다. 그는 평생 모은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성륜사에 땅 11만 평과 100여 년 된 고택 3채를 기증해 사찰창건에 공헌했다. 또한 성륜사 인근 옥관미술관에 1만여 점의 유물과 작품을 공공의 재산으로 기탁했다. 특히 기증된 고택 중 육화당, 안심당은 최근 유형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다.



곡성 성륜사에 마련된 조방원 선생 공덕비. 제막식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제막하고 있다.

조방원 선생 추모 4주기를 맞아 열린 제막식에는 문도대표인 용타 스님, 도일 스님,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을 비롯해 조방원 선생 유가족과 문하생 등 1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해 선생의 업적을 기렸다. 이날 제막한 공덕비는 조형작가 윤선종 씨의 조각에 정진백 작가의 글과 학정 이돈흥 선생의 글씨가 더해진 작품이다.

벽산문도회 문장 용타 스님은 "두 분은 나이를 뛰어 넘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로 조방원 선생께서 청화 스님을 깍듯이 모셨다. 그런 깊은 인연으로 스님들의 수행도량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조방원 선생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진불 재능 펼치는 혜원문화축제 열린다

6월 9일, 백일장 및 음악회

지역민과 소통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부산 혜원정사(회주 원허)는 6월 9일 경내에서 혜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혜원문화축제는 어린이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제21회 혜원백일장과 제17회 혜원음악회로 구성된다.

혜원백일장은 행사 당일 오전 9시에 열리며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모두 참여 가능하다. 사전 접수는 홈페이지(www.bokhyewon.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은 후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6월 8일까지.

혜원음악회는 오후 6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가수 양하영, 리아킴, 남상일, 김종환 등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051)868-013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원융불교대학 7기 학인 수시모집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 모집

· 교육과정 | 초. 중. 고급반
조석예불, 종성,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다림(목탁, 요령), 요잡, 천도의식, 49재, 관음시식
· 학 장 | 종무원장 도안스님
· 강 주 | 상진스님
· 강 사 | 법진스님
· 개강일시 |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0번길 8 (한국불교태고종충북교구종무원연수원)
· 모집학과 | 불교의식 (범패)학과, 기초 불교 교리
· 강의시간 | 초. 중. 고급반 (추후공지)
※ 상기수업시간과 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반명함사진 1매, 입학원서(불교소정양식) 1부
(태고종승려는 승적증명서 1통, 수계증 사본)
· 접수시간 | 수시모집
· 접 수 처 | 충북교구종무원(043-265-7100) / 교학처장 도성스님(010-7738-0966)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보살, 재가불자, 일반인 염불의식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가능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 · 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